

Living the Lotus 4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6
VOL. 247



The Brazil Dharma Center Welcomes Rev. Takashi Maeda, Director of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on March 22

Living the Lotus
Vol. 247 (April 2026)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문미디어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김은미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범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 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범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제비꽃처럼 작은 사람이 되자

니와노 니치코(庭野 日鑛)
입정교성회 회장



나쓰메 소세키 (夏目漱石) の句と誕生偈

1897년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1867-1916)는, 경외하는 벗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1867-1902)에게 ‘제비꽃만큼이나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하이쿠(俳句:일본 정형 시의 일종)를 지어 보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근대 국가를 향한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이 하이쿠에는 소세키의 슬픔과도 비슷한 감정이 배어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그러나 그 이해를 잘못하면, 자기를 과대하게 자부하거나 타를 위압하거나 하는 만심이 되어, 때로 사람들이 모두 전쟁을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한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직면하며 ‘나는 도로변에 살짝 핀 제비꽃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의기롭게 살아가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이고 싶다’는 바람이, 이 하이쿠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4월8일은 석존의 탄생을 축하하는 법회입니다만, 석존께서 탄생하시자마자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탄생계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보면, 그야말로 소세키의 이러한 마음과 통하는, 겸허한 마음과 내성, 그리고 자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명뿐인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유정천이 되어 품게 되는 야심이라든가, 타인과의 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자타를 존중할 것, 즉 모두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의미이며, 거기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의미가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거만해져서 자기만족을 얻기 위한 삶보다도,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화(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의미

소세키는 ‘제비꽃’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떤 꽃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 계절이라면 목련이나 벚꽃, 민들레도 사랑스럽고, 향기로 편안함을 주는 정향나무 등도 거론될 것 같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에 서열은 없다’고 갈파한 사람이 계셨듯이, 그 어떤 꽃도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 해서 피어 있으며 거기에는 우열도 없고 미추의 차별도 없습니다.

철학자 니시다 키타로(西田幾多郎:1870-1945)선생은 적절하게도, ‘꽃이 꽃의 본성을 보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보일 때 아름다움의 정상(頂上)에 도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본성은 불성 이외는 없으며, 그것을 각자가 자각하여 그 불성을 발휘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꽃과 같이 본분을 다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인생의 의의를 자각할 타이밍은 사람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초조해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가(道歌)중에,

‘세상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거야. 좋은 마음 하나를 고분고분하게 하며’(사젠 세케이(佐善雪溪):1657-1745)가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여 걱정도 두려움도 바라는 마음도 적게 하여, 눈에 띄지 않아도 마음은 항상 고분고분한 그대로 있자는 의미 정도입니다.

불안과 불만이 쌓이는 시대야말로 이러한 자세로 ‘먼저 남부터’의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들)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성이 풍부한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교성』 2026년4월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탈리아 · 로마 법좌 니콜라 티니

언제, 어떤 경위로 입정교성회 가르침과 만나게 되었습니까?

1972년 로마에서 태어난 저는, 18살때부터 종교에는 일체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대학에 다니던 중에 ‘동양의 정신성’이라는 수업에서 인도와 중국, 일본 불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러가지 불교서적을 읽어 나가는 중에, 13세기 일본에 니치렌 성인(1222-1282)이라는 위대한 불교 승려가 실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니치렌 성인이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법화경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생애를 바쳤다는 것을 알고, 저는 완전히 법화경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 후, 저는 로마의 일본 문화 회관 도서관에서 ‘Rissho Kosei-kai’ (1966년 발간)라는 제목으로 된 영어 번역본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손에 들자 입정교성회의 역사와, 법화삼부경을 소의 경전으로 한다는 것 등의 설명 외에도, 낙성 직후의 대성당과 본존님, 법좌수행, 오에시키, 그리고 제2 바티칸 공회의에서 개조님과 교황 파울로 6세가 회견하신 사진 등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깊이 감동한 저는, 경전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던 일본의 입정교성회 본부에 바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2주 뒤에 답장이 와서 저는 감격과 기쁨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로마에 있는 대학에 유학중인 입정교성회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입정교성회 스기나미 교회의 교회장님(동정교구장)인 가와모토 코이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1992년쯤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편의 책이 불연(仏縁)이었군요!

그 후, 가와모토씨는 저희 집을 몇 번이나 방문해 주셨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ニコラ・ティーニさん

불교와 법화경, 입정교성회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쉽게 열의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작지만 로마에 훌륭한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와모토씨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이며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학기간을 마치자 일본에서의 새로운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로 젊었기 때문에 리더가 없는 로마에서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서 나아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려고 1998년부터 재가 승려로서 수행에 힘쓰며 그 다음해에는 정식적으로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역시 나는 재가로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재가불교 입정교성회라는 승가 속에서 법화경을 확실하게 배워서 실천하고 싶다’ 고 깊이 결심하여, 2003년에 재가로 돌아와 입정교성회 회

원으로서 수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3년에 로마 센터가 문을 열어 미즈모 카츠도시님(현재 입정교성회 하마키타 교회 교회장)이 센터장으로 취임하시며 우리들의 새로운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니콜라씨는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에서 개최한 번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출판물 번역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로마센터 개소 후 제가 바로 시작한 것이, 영어 번역 ‘법화삼부경’의 이탈리아어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조님의 저서 ‘신석법화삼부경(新釋(전10권)),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회장선생님의 저서 ‘마음 받을 간다’도 동시진행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월 ‘Living the Lotus’에 게재된 개조님, 회장선생님의 법화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작업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으며, 또한 고독과의 싸움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럴 때 국제전도부 스태프 분들이 이메일이나 온라인 법좌 등을 통해 격려해 주셨고, 그리고 지탱시켜 주셨던 분들 덕분에 저는 그러한 고뇌와 고독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긴 시간에 걸쳐 국제전도부 스태프 여러분들의 협력을 받아 염원하던 이탈리아어 번역 ‘법화삼부경’이 출판되었으



2025年10月、ローマ法座の会員(左)と共に来日したニコラ・ティーニさん。右端は川本貢市杉並教会長。



2025年10月12日、生誕地まつりに参加した浜北教会の会員と(後列中央)

며, 게다가 감사한 것이 회장선생님으로부터 ‘머리말’을 기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법화경은 난해한 어구가 많으며, 또한 심원한 가르침을 번역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어떤 점에 유의하십니까?

어떤 문장을 번역해도 똑같습니다만, 특히 ‘법화삼부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구 하나 하나의 의미가 정확하고 빠짐없이 전해지도록, 가장 적절한 이탈리아어의 표현을 엄선해서 번역했습니다. 또한, 오해를 사기 쉬운 어구나 표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정교성회 회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이한 말로 번역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화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도록 번역에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처 진의와 개조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여러분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논의를 거듭하여 번역작업을 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번역을 통해서 장대한 법화경 여행을 다녀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본에서 지내면서 여러 체험을 하셨군요.

Interview

일본에 온 큰 목적은 아무래도 번역 회의였지만, 저에게 있어서 약 3주간 일본에서 지내면서 한 여러가지 체험은 평생동안 잊을 수 없을 귀중한 ‘순례의 여행’이었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저는 야마나시현의 니치렌종 총본산의 미노부산 구원사 참배, 시즈오카현 입정교성회 하마키타 교회에서 숙직체험, 니가타현 토오카마치시의 생탄지 축제에 참가, 또 스기나미교회에서 한 되도리나 법좌수행, 주기공양 등 포교실습, 마지막으로 ‘순례의 여행’의 마무리로서 스기나미 교회 여러분과 함께 본부 오에시키 일승축제의 행진 대열에 참가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한 수행체험과 일본의 회원 여러분과의 만남에서 배운 것을, 앞으로 이탈리아 승가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경문이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법화경은 모든 품이 훌륭하며, 감명 깊은 경문도 다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특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은 여래신력품제21입니다. 이 품은, 부처님께서 지중에서 솟아나온 상행보살을 비롯해서 지용보살들에게 법화경을 미래에 전하는 사명을 맡기는 중요한 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본 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라도,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열심히 법화경 가르침을 전하거라’고 저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 여래신력품을 아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장래 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티나에서는 아직까지 전투가 장기화하며, 안타깝게도 세계는 분단과 대립이 진행되어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협조님을 통해서 ‘입정교성회를 시작으로 법화경이 세계만국으로 퍼진다’는 신시(神示)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늘 날이야 말로 입정교성회가 세계를 향해 법화경 가르침을 넓히는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승가의 결집과 성장발전을 목표로, 법화경을 포교해 나갈 것, 즉 우리들 각자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몸에 익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 나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상은 아주 큼니다. 꿈은 로마에서 교회장 역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매일 매일 수행 속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법화경을 배우고 실천함과 동시에 승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포교 전도에 노력하여, 많은 이탈리아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ローマ法座のサンガと (右から4人目)



부처의 옷을 입다

「유화(柔和)」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

입정교성회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지방 포교에 나선 개조님과 협조님 (1952년, 이바라기현)

지금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정신적인 평안함, 정신적인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는 가장 큰 관심거리로 주위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人)’이라는 글자는 하나의 막대기를 또 하나의 막대기가 받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글자의 성립이 가르쳐 주고 있듯이,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 주고 지탱시켜 주는 것으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대기의 길이에는 장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긴 쪽이 주역, 짧은 쪽이 보좌역이라

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지탱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지탱받고 있는, 지탱 받고 있는 듯하지만 지탱시키고 있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실제일 것입니다. 서로가 지탱하고 지탱시키는 것의 고귀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탱 받으며 살고 있으므로, 나 또한 주위 사람을 지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자'고 생각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한 기쁨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내 주변 사람들과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기 위한 힌트로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범화경 '범사품'의 '여래의 옷을 입고'라는 구절입니다. '여래의 옷'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경문에는 '여래의 옷이라 함은 부드럽고 화평(유화)한 인욕심이 이것이니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유화'란 글자 그대로 부드럽고 화평한 마음입니다. 사람과 대립해서 비판하거나 찌르거나 하는 뾰족뾰족한 마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크게 품어, 만난 사람들과 깊이 어울려 하나가 된다(큰 조화)는 정신입니다.

지금부터의 시대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것들에게 살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해 집니다. 이 '살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여래의 옷을 입는다'는 말에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입은 옷은 시체를 싸서 무덤에 버려진 것이나, 쓰레기장 등에서 주운 오래된 천 등을 빨아서 손상되지 않은 부분은 자르고 꿰매서 이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붉은 흙으로 진흙염색을 해서 황토색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살려지고 있다' '인연이 있는 것에게 지탱받고 있다'는 겸허한 마음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추궁해 보면 결국은 '신불과 천지의 만물, 만인에게 살려지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다'는 진실에 귀착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립, 경쟁, 비판 등의 마음은 티끌만큼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표정과 말투, 행동에도 나타나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며, 그곳에 올바른 인간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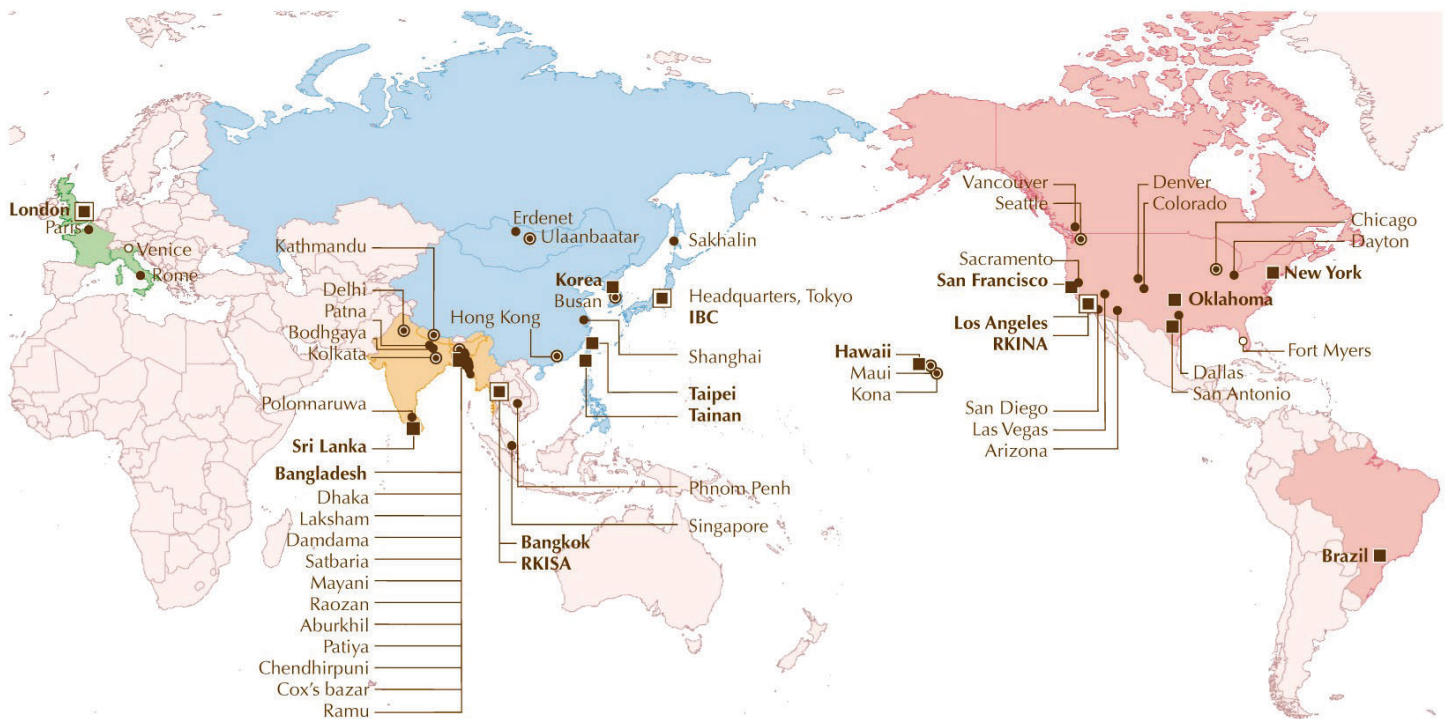
니와노닛쿄 헤세범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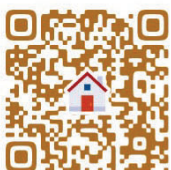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